



‘365년간 해외여행보험’

여행취소 위약금, 횡수 제한 없이 보장



한 번 가입으로 1년 동안 혜택

삼성화재가 ‘365년간 해외여행보험’에 여행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보장하는 ‘여행취소 위약금보상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365년간 해외여행보험은 한번의 가입으로 1년 동안 횡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간형 상품이다. 출장이나 단기 체류 등 해외 출국이 잦은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

이번 여행취소 위약금보상 담보는 여행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보장한다. 사전에 예약한 교통권, 숙박

권, 체험권 등의 취소 수수료(위약금)를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보장한다. 최대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한편, 삼성화재는 해외여행보험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업계 최초로 국내 출발 항공기 지연 지수형 담보를 출시했으며, 9월에는 항공기 지연 보상 기준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담보 신설은 고객의 여행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보장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

화재 보험료 전액 경기도 시군 부담



취약계층 건물·가재도구 등 피해 보상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을 제공한다.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료 전액을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해 취약계층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화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총 1년이다. 화재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춘 여러 항목을 지원한다. ▲주택 건물 피해보상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보상 최대 1억원 ▲임시 거주비 최대 200만원(1일당 2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

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포용 금융의 한 형태로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경기도가 100% 지원!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가입대상 및 기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5.12.18. ~ 2026.12.17. / 1년간)  
보험가입 혜택  
재물위험 건물 3,000만원 한도 가재도구 700만원 한도  
화재배상책임(대물)위험 사고당 1억원 한도  
임시거주비 200만원 한도 (1일당 20만원)  
24시간 사고접수센터  
1660-1039  
02-6455-4833  
plan24@plan24ins.co.kr  
카카오톡: 플랜이심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문의) 생활안전담당관 도민안전지원팀 | 031-231-0371-2



‘무지개다리 제휴서비스’

포포즈와 펫장례문화·보험 확산 협력



공동 캠페인 추진 등 올바른 문화 정착

DB손해보험이 ‘펫닥’의 반려동물 장례식장 운영사 ‘포포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지개다리 제휴서비스’를 출시한다.

무지개다리 제휴서비스는 DB손해보험 펫보험 가입 고객 및 반려동물 양육이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이 포포즈 장례서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생화 꽃장식 쿠폰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DB손해보험의 애플리케이션(앱)과 모바일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쿠폰 제공 및 사용 방식 및 적용 조건 등

상세 내용은 DB손해보험 앱 펫전용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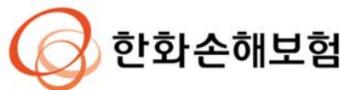
한편,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바른 펫 장례문화 전파 ▲펫보험 확산 ▲공동 캠페인 추진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반려가족이 장례 과정에서 겪는 정보 비대칭과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도 고객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제휴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올바른 펫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4.0’

임신지원금, 배타적사용권 1년 획득



임신·출산 관련 보장 강화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생애주기 전반의 위험을 겨냥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4.0’을 출시하며 여성특화보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난임·임신·출산·산후관리부터 여성 고유질환, 정신건강, 사회적 위험 이후 법률비용 부담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여성보험 시장 내 차별화를 이어나간다.

이번 4.0의 핵심은 보장 영역의 확장이

다. 업계 최초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를 마련해 이혼소송 시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레이디(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 보장, 여성 고유질환(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 질환) 중심 통합 치료비 보장도 담았다.

임신·출산 관련 보장도 한층 강화됐다. 임신 단계에서 1회 5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지원금’ 특약을 도입했다. 출산 이후에는 출산지원금(첫째 1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500만원) 외에 산후조리원 비용, 입원 중 자녀돌봄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이 가운데 임신지원금 특약은 손해보험업계 장기손해보험 영역 최초로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 예정으로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특약도 각각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 여성 고객의 생애주기별 니즈를 반영한 특화상품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여성의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보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